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70
----------	------

발의연월일 : 2024. 10. 30.

발 의 자 : 우재준 · 이성권 · 임종득  
조지연 · 김선교 · 강대식  
이상휘 · 구자근 · 주호영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조정하는 등의 관행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구직수급 관행을 만들고,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제13조제4항(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격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

2.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격

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6. 질병·육아, 임신·출산·육아로 이직한 사람
7. 이직사유 또는 노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3조의2(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u></p> <p><u>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u>  <u>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u>  <u>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u>  <u>일 이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u>  <u>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u>  <u>업주가 제13조제4항(제48조의2</u>  <u>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u>  <u>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u>  <u>함한다)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u>  <u>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u>  <u>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u>  <u>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u>  <u>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u>  <u>40 범위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u>  <u>다.</u></p> <p><u>1.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u>  <u>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u>  <u>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의5제</u>  <u>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u>  <u>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u>  <u>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u>  <u>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u></p>

격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

2.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에 술인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p>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 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 무제공자</p> <p>6. 질병·육아, 임신·출산·육 아로 이직한 사람</p> <p>7. 이직사유 또는 노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p>
--	---